



대전 중양로에 매머드급 서점 낸 대훈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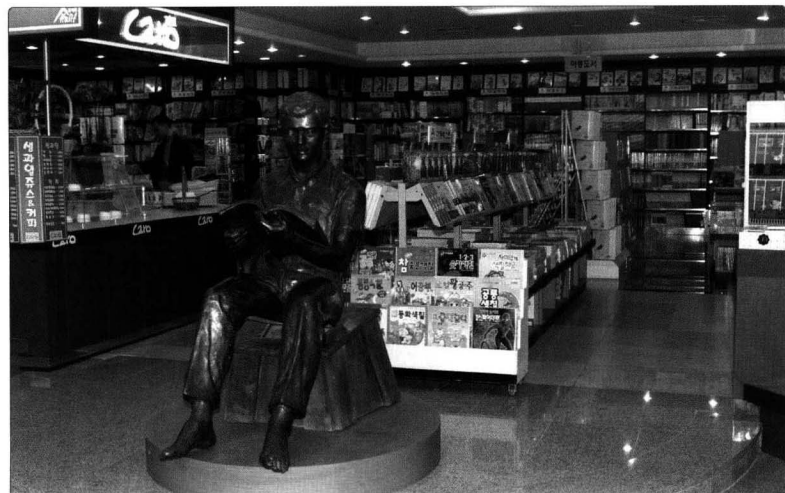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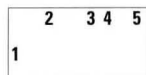


대훈서적 중앙점,

700여 평의

도서문화 1번지

김주팔 대표 '충청도의 문화적 힘' 과시



1 책과 여유를 전하는 문화공간 대훈서적 중앙점 내부 2 북한도서·향토작가 전시장 3 대훈서적 김주팔 대표 4 지역출신 유명작가 6인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설치물. 대훈서적 중앙점 입구에서 만날 수 있다. 5 향토작가 코너와 북한도서 코너

대전 서점계를 대표하는 대훈서적이 다시 한 번 충청도의 문화적 역량을 과시했다. 지난 10월 27일 대전 중양로에 문을 연 대훈서적 중앙점은 매장 크기만 700여 평, 서가 길이만 1.5킬로미터가 넘는 매머드급 서점이다. 서울의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포함해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규모다. 서점경영에 50년을 바친 지역출신 김주팔(63) 대표가 작심한 '대훈서적 결정판'이요, '충청도의 힘'에 다름 아니다. 대형서점이 지방으로 세를 확장시키는 요즘 대훈서적이란 자체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김 대표의 경영전략이 인상적이다.

“건물주 삼성생명이 대형서점 입주를 원했습니다. 규모는 마음에 들었는데, 시청과 법원이 신도시로 옮겨가 상권에서 떨어진 점이 조금 걸렸지요. 임대계약 연수를 10년으로 하자고 요청했던 건, 서점 인근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상권을 조성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뒤에 물가인상률만큼만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이면합의를 전제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충청권 대표 서점 대훈서적의 야심작

김 대표는 문화공간의 의미를 더하려 내부 인테리어에 많은 공을 들였다. 로비와 통로 등의 공유공간을 서점공간으로 편입시켜 최대한의 편의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널찍한 '만남의 공간' 곁에는 잠지코너를 두어 사람들의 휴식을 즐겁게 했다. 책을 팔기에 급급하기보다 책과 여유를 전하는 문화공간으로 모범을 보여야 문화상권 개발에 한몫 할 수 있다는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는 또 오프라인 서점 경쟁력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서점은 주변 서점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서점이 할인과 편의를 제공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은 문화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향토작가·북한도서 코너에 편의공간을 더 넓게 마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점



할 수 없는 문화인만큼, 편히 앉아 천천히 그것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향토작가 코너와 북한도서 코너는 대훈서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향토작가 매대에는 지역출신 작가들의 책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다. 지역출신 작가가 책을 갖고 온다면 작은 자리나마 흔쾌히 내어줄 생각이다.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알팍한 수완은 아니다. 김 대표는 문예지 <대전문학> 발행을 오랫동안 지원했으며, 현재도 지역작가 모임에 참석해 적지 않은 힘을 보태고 있다. 주의가 깊은 사람이라면 정지용, 한용운, 이어령, 김홍신, 김성동, 윤대녕 등 지역출신 유명작가 6인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설치물을 서점 입구에서 볼 수 있다.

북한도서·향토작가 코너 등 지역문화의 중심공간

북한도서 코너는 대훈서적의 또 다른 실력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1993년 북한도서 유통허가를 받고 수입·보급을 시작한 대훈서적은 북한도서 소장에 있어 으뜸을 자랑한다. 소장도서 12만여 권 가운데,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리조실록>, 평양발행 <조선문학> 등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허락된 150여 종의 도서가 북한도서 코너에 전시되어 있다. 한쪽 매대에선 북한도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대훈서적에서 자체 출간한 홍석중의 <황진이>다. <황진이>는 출판사 창비에서 제정한 2004년 만해문학상 수상작으로, 최초로 이북작가가 남측 문학상을 수상하는 이변을 연출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북한도서 수입·보급에 대한 김 대표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같은 문학상상 기념비적인 사건은 물론, 벽초 홍명희의 손자 홍석중의 수준 높은 작품과 일면식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올림픽 즈음 민족화합 북방정책이 확대되면서 학계 인사들이 북한도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못 구할 것 뭐 있겠소’ 했던 치기어린 응답이 북한도서를 수입하고 보급한 계기가 되었지요. 조선족이 운영하던 연변문예사와 간신히 줄이 닿아 북한도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당시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다 뒤흠고 다녀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수입에 물꼬를 트고서는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책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는 북한도서를 많이 읽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북한도서 수입·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고객중심의 매장, 지역주민과 문화를 잇는 가교

김 대표의 50년 서점경영 노하우는 서점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반 성인의 눈높이를 고려해 제작된 서기는 책을 찾는 피로를 덜어준다. 서가에 꽂힌 어떤 책을 빼내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 서가와 서가, 매대와 매대 사이의 통로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도 충분할 만큼 넉넉하다. 개성이 다른 어린이도서 코너와 일반도서 코너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서로 간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책을 즐길 수 있다. 편의공간에 마련된 컴퓨터를 이용해 그 자리에서 정보를 수집, 책을 구입할 수도 있다. 중앙점에서 만난 최성규(33, 웹마스터) 씨는 “여느 서점과는 달리 책 정보만 찾으려는 식의 딱딱한 시스템이 아니어서 신선감마저 느껴진다”며 “온라인서점을 검색해 책 정보를 보고 오히려 이곳에서 책을 구입하는 일도 있다”며 대훈서적의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김 대표는 대훈서적 중앙점을 비롯해, 대전역 앞의 본점, 둔산동 타임월드점, 유성 까르푸점 등 대전 시내에 200명이 넘는 대형서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카이스트와 한밭대학교에는 구내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에서만만큼은 대형서점의 대명사는 대훈서적이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형서점을 능가하는 문화공간을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대훈서적이 될 것입니다. 상권에서 떨어진 자리라 해도 5년은 버틸 자신이 있습니다. 대훈서적 중앙점 인근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전통의 변화가인 중앙로로 다시 지역주민을 불러모을 것입니다.”

대훈서적은 지역주민과 문화를 이어주는 큰 가교다. “자신을 낳은 것은 부모지만 길러준 것은 책이었다”라는 김 대표의 말은 대훈서적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다. **한민**

취재 | 박용두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